

<Brief Report>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찾는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성 행동

주 리 애[†] 하 승 수 권 석 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수준과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 및 성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및 과거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다양한 성 행동, 성 의식, 성에 대한 사고의 빈도와 불편감, 외향성, 개방성, 죄책감, 사회적 선회도에 대해 질문지를 바탕으로 t-검증과 상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에 비해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했고, 성 행동도 많았다. 남녀 대학생 모두 인터넷 음란물에 자주 접촉할수록 성적사고의 빈도가 높았고, 성적 자극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또, 대체로 성적사고에 대한 불편감은 적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더 자주 접촉했다. 죄책감이나 사회적 선회도는 음란물 접촉 수준과 어떠한 상관도 보이지 않았다. 현재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것은 남자 대학생에게서만 성적 경험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인터넷 음란물, 성 행동, 성 의식, 성적 사고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주 리 애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
FAX : 02-476-9725 / E-mail : julietj@hanmail.net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1994년 1천 8천여 명에서 2002년 1월 2천 5백만 명으로 추산되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탄탄한 통신 인프라의 구축을 바탕으로 급격하게 정보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이 사용자들 간의 인간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대화를 촉진시킨다는 보고도 있지만(조선일보 2000, 6, 23), 대다수의 보고들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초래된 생활상의 문제점이나 중독적 이용자의 심리적 문제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의 역기능적 사용은 자살 사이트의 등장(동아일보 2000, 12, 16; 조선일보 2001, 2, 10)이라든지 채팅방을 통한 원조교제(동아일보 2002, 8, 22), 각종 유언비어와 인신공격의 남발(김재훈, 2000), 음란물의 범람(동아일보 2001, 1, 19), 통신사기(동아일보 2001, 12, 16; 조선일보 2001, 2, 13), 게임 중독(조선일보 2000, 8, 2; 조선일보 2000, 11, 7)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터넷의 역기능적 사용은 매우 주목받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인터넷 중독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과 그에 따른 생활상의 역기능을 핵심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은, DSM-IV의 약물남용장애와 충동 통제장애의 진단기준을 바탕으로 진단적 기준이 기술되었고 사용자들의 행동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대한 조사 자료가 보고되었다(Goldberg, 1996; Griffiths, 1996; Young, 1996, 1998a; Young & Rogers, 1998).

이제까지 밝혀진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자들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Young(1998a)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에 더 쉽게 중독된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중독자들 중에는 정서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했고, Kraut 등(1998)과 Anderson(1999)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우울감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그에 비해 Shapira, Goldsmith, Keck, Khosla와 McElroy(2000) 등은 인터넷 중독을 보인 사람들에게 항우울제보다 기분안정제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고했고, 또 인터넷 중독자들의 정신장애 유병률이 양극성 장애와 분열정동장애, 양극형이 80%인데 비해 주요우울장애는 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행동은 본질상 강박적이고 자아이질적이라기보다 충동적이고 자아동조적이었다고 했다. 즉, 인터넷을 시작하기 전에 긴장이나 흥분의 정도가 높아지므로 저항하기 힘들지만, 일단 인터넷을 시작하면 긴장을 덜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인터넷 중독자들이 강박장애와 우울장애의 특징을 보일 것이라는 기존가설과 달리 충동조절장애와 유사하고 양극성을 보여준 것이라 결론 내렸다.

둘째,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격적 특징으로서 내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Shotton(1991)은 내향적이면서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된다고 했고, 이봉건(1999) 역시 내향적인 사람이 더 쉽게 인터넷에 몰입한다고 했다. 그러나, 인터넷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내향적이라는 연구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Armstrong, Phillips와 Saling(2000) 등은 성격차원에서 내향성은 각성수준이 높고 자극이나 흥분으로부터 철회한 것을 포함하는 반면에 외향성은 낮은 수준의 각성과 외향적인 성격, 지속적인 자극추구를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터넷 중독자들이 내향적이라는 보고는 인터넷 중독 및 내향성/외향성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특성을 생각할 때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Young(1996)은 머드 게임이나 채팅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가 매우 자극적이며 사회적인 교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외향성이 두드러진

다고 보았다.

셋째,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에 주요 특성임이 밝혀졌다. 이소영과 권정혜(2001)는 인터넷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비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더 충동적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문제해결 유능성이 낮다고 했다. Armstrong 등(2000)은 인터넷 관련 문제 척도를 만들어서 20대 후반의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예측해주는 것은 낮은 자존감과 낮은 각성 및 충동성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 외에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거나 (Shotton, 1991; 박정은, 2001), 가족의 지지가 약하거나(안석, 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합리적인 경우에 인터넷 중독이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되었다. 가상세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머드 게임의 경우, 가상 취약성(fantasy proneness)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인터넷 중독을 보였다 (Rauschenberger & Lynn, 1995).

이렇게 인터넷 중독자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상반되거나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인터넷 중독이 하나의 단일한 특성을 보이는 단일 장애가 아니라 다양한 하위 세부 유형을 포괄하는 증후군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Brenner(1997)는 25개국으로부터 1,885명을 조사한 결과, 어떤 하나의 전형적인 인터넷 중독자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인터넷에 로그인한 시간이 길다는 것이 주된 초점이 아니라, 인터넷에 로그인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인터넷 중독을 나누어줄 수 있는 분류점으로 떠올랐다. Young(1999)은 인터넷에서 채팅을 사용하거나 머드 게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보검색과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중독적 경향성을 더 높게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을 다섯 가지 하위 유형-사이버 섹스 중독, 사이버 관계 중독, 네트

워크 강박증, 정보 과몰입, 컴퓨터 중독으로 나누었는데, 이러한 분류시도나 최근의 연구 추세가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로 가는 점 등은 인터넷 상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의 하위 유형인 사이버 섹스 중독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이버 섹스 중독은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에 자주 접속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 음란물이라 함은, 야동, 야사, 야설이라 불리는 음란 동영상이나 음란 사진, 음란 소설 등과 음란 채팅 등 인터넷 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란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인터넷 음란물은 정부기관의 단속이나 검열, 성인인증 시스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자의 익명성도 보장된다. 그리하여 2000년 6월 한 달 동안에만 국내에서 50만 명이상이 접속한 포르노 사이트가 13개였고, 이 중 3개의 사이트는 100만 명 이상 접속할 정도로 성장했다(정철영, 2000). 또한, 2002년 서울 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전국 초중고생 2,807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 정도가 인터넷 상에서 채팅 도중 성매매를 제의받았다(동아일보, 2002, 7, 9). 하지만 이러한 음란물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사용자의 인터넷 음란물 사용 행동에 대한 기술적 자료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인터넷 음란물의 영향력이나 사용자의 심리적 속성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 인터넷 음란물 사용자들에 대한 기술적 자료들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접속 수준과 관련된 행동 특징들을 보고하고 있다. 음란물에 접속한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은 대체로 40~70% 안팎의 중고등학생들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지속적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에서는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4%가 1주일에 평균 2.48개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보고했다(조선일보 2001, 4, 23).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청소년 대다수는 음란 사진이나 음란만화, 음란 동영상, 음란 채팅을 사용하였다고 보고했고, 채팅 상대와 만나서 실제적인 성관계를 맺거나 원조교제를 알선한 경우도 10%에 달했다.

전국 초중고교생 1,93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대략 청소년의 20%가 음란채팅을 해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동아일보 2000, 10, 11). 나이가 많을수록 음란채팅의 경험보고율이 높아졌는데, 초등학교생 1.5%, 중학생 29.2%, 고등학교생 69.3%로 나타났으며, 음란 채팅을 경험한 후의 느낌에 대해서는 43.8%가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고 답했고 '성적인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는 청소년은 10.5%였다.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 연구소에서 2000년 7월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1,105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이세용, 2000). 남자 고등학생은 77.5%, 초등학교 남학생은 22.1%가 음란물을 본 경험을 보고했다. 음란물 검색의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3%, 거의 하지 않는다 16.0%, 가끔 한다 10.9%, 자주 한다 3.6%, 항상 하는 편이다. 2.7%였다. 음란 채팅 및 사이버 섹스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1.0%, 가끔 하거나 자주 혹은 항상 한다는 응답이 9%였다.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무와 음란물 검색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컴퓨터가 설치된 위치가 어디냐는 것도 음란물

검색과 상관이 없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2000)에서 발표한 인터넷 사용과 음란물 접촉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생들 696명의 인터넷 이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접촉간에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월등하게 높고,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1개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남학생 75%, 여학생 13%에 달했다. 성적흥분이나 만족을 위해 인터넷 음란물을 찾는다는 비율은 30.1%, 음란물 이용 중 자위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10.5%, 사이버 섹스의 경험은 5.9%, 채팅 상대와 직접 성 관계를 가져본 경험은 4.0%, 음란물 접촉 사실을 가족에게 숨긴 경험은 31.7%,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죄책감 경험은 27.4%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사용자의 행동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터넷 음란물을 빈번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은 성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인터넷 음란물에 빈번하게 접촉하는 것이 사용자의 실제 성 행동에 영향을 주는가? 인터넷 음란물 사용자들은 어떠한 심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은 보다 더 개방적이거나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인가? 아니면 인터넷 중독으로 기술된 사람들처럼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들인가? 음란물을 자주 보는 것이 죄책감을 유발하지는 않는가? 혹시 이러한 질문에 답할 때 사회적으로 호감 가는 방식으로 반응을 왜곡해서 보고하지는 않는가?

본 연구는 위의 질문들에 답하고자, 인터넷 음란물 사용자의 심리적 속성을 밝히고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는 것이 사용자의 성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기존 조사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들이었으므로 이들의 성 행동과 인터넷 음란물 이용 정도와의 관계를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와 같은 성 행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대학의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방 법

참가자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서울 소재 8대와 O대 대학생 251명이 설문에 참가하였다. 남자가 154명, 여자가 97명으로 참가자 연령은 18세에서 27세 사이며 평균 연령은 20.98세이다(표준편차 2.00세).

도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질문지: Young(1998b)은 인터넷 사이버 섹스 중독을 판별하기 위해서 6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라도 그렇다는 답변을 할 경우 인터넷 음란물 중독을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질문들은, (1)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위해 인터넷 음란물을 찾는가, (2) 인터넷 음란물 접속 중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3)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섹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4)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진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가, (5) 친구나 가족에게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6)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등이었다. 이러한 Young의 판별기준을 사용했던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2000)의 보고서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중고등학생 696명 중

59%가 음란물 중독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oung의 질문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을 Likert 척도로 질문하였다.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으로 나누어 '요즘 나는 때때로 성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다' 및 '과거 청소년기에 나는 성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했다'로 두 개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에서부터 '약간 그렇다(1점)', '상당히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성 행동 질문지: 성 행동과 관련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5개 범주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위행위, 이성친구와 성관계, 낯선 이성(예: 매춘부)과 성관계, 음란잡지/음란영화/음란소설 등 성인물 접촉, 성과 관련된 대화라는 5개 범주별로 각기 과거 청소년기와 현재로 나누어 2문항씩 10개 문항을 Likert 4점(0=전혀 아니다 1=약간 그렇다 2=상당히 그렇다 3=매우 그렇다)척도로 질문하였다. 사용된 10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본 연구의 경우 $\alpha=.76$ 이었다.

성 의식 질문지: Fisher, Byrne, White와 Kelly(1988) 등에 의해 개발된 21문항의 질문지로 성적인 자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태도를 보이는가, 혹은 부정적인 평가태도를 보이는가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Likert 7점(0=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매우 동의한다) 척도로 묻고,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26점까지이며 높은 점수일수록 성적 자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양상을 반영한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alpha=.82\sim.90$ 이며(Fisher 등, 1998),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다(Tanner & Pollack, 1988).

성적사고 경험빈도 및 불편감 질문지: 다양한 성적사고를 탐색할 수 있도록 Hurbert Index of Sexuaql Fantasy, Sexual Daydreaming Scale 문항 (Davis, Yarber, Bauserman, Schreer, & Davis, 1998)을 번안하고, 10여 명 대학생들과의 면접을 통해 13개 범주 73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경험빈도와 불편감을 질문하였고, 경험빈도는 Likert 7점(0=경험한 적이 전혀 없다, 6=하루에도 여러 차례 떠올린다) 척도로, 불편감은 Likert 5점(0=전혀 불편하지 않다, 4=매우 불편하다) 척도로 질문하였다. 경험빈도의 점수범위는 0점에서 483점, 불편감의 점수범위는 0점에서 29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빈도가 높고 불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3개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노출 범주(예: 여러 사람 앞에서 나의 성기를 보여주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2) 관음 범주(예: 이성의 성기를 몰래 훑쳐보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3) 자위 범주(예: 강한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성인용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4) 다수의 대상 범주(예: 동성과 이성으로 구성된 여러 명과 함께 그룹 섹스를 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5) 가학 범주(예: 내가 보는 앞에서 타인이 성행위를 하도록 강제로 시키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6) 피학 범주(예: 강압적인 상황에서 수동적인 성행위를 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7) 다양한 대상 범주(예 유명 연예인과 성행위를 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등), (8) 낯선 이 범주(예: 처음 보는 이성이 내게 다가와 유혹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9) 동성애 범주(예 동성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10) 근친상간 범주(예: 형제자매 중 한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11) 음란채팅 범주(예: 컴퓨터 화상채팅을 통해 알몸으로 이성과 대화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12) 부적절한 상황 범주(예: 교회나

종교적인 모임에서 성행위를 하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13) 기타 행위 범주(예 전화를 통해 이성과 음란한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상상을 한 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성적사고 경험빈도 질문지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a=.97$ 이었고, 성적사고 불편감 질문지의 경우 내적 합치도는 $a=.98$ 이었다.

NEO 인성검사 - 외향성 요인: Costa와 McCrae (1992)의 NEO인성검사 질문지 개정판의 한 하위 척도인 외향성 척도만 뽑아서 모은 48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이 검사는 대인관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온정(warmth), 타인과의 교제에 대한 선호도를 의미하는 사교성(gregariousness), 사회적 우세함과 지배력을 의미하는 주장(assertiveness), 정력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활동성(activity), 자극과 흥분에 대한 갈망을 의미하는 자극추구성(excitement-seeking), 긍정정서 경험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정서(positive emotions) 등 6가지를 측정한다. 48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점수범위는 0점에서 192점이다. 한국판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a=.83-.91$ 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이었다(홍상환, 김영환, 1998).

NEO 인성검사 - 개방성 요인: Costa와 McCrae (1992)의 NEO인성검사 질문지 개정판의 한 하위 척도인 개방성 척도만 뽑아서 모은 48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상상을 즐기는 정도를 의미하는 상상(fantasy), 예술과 미에 대한 깊은 감상력을 의미하는 심미성(aesthetics), 내면적 감정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감정의 개방성(feelings), 다양한 행동을 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의 개방성(actions), 지적 호기심을 의미하는 사고의 개방성(ideas), 기존의 가치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경향

성을 보여주는 가치의 개방성 (values)까지 6가지를 측정한다. 한국판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alpha=.83 \sim .91$ 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이었다(홍상황, 김영환, 1998).

죄책감 질문지: Kugler와 Jones(1992)에 의해 개발된 45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현재 혹은 최근의 위반에 기반을 둔 상태 죄책감 (state guilt), 특정 행동이나 신념들에 관련되지 않는 도덕적 원칙들인 도덕적 기준(moral standard), 즉각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죄책감인 특질 죄책감 (trait guilt) 등 세 차원을 측정한다. 총 45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alpha=.83$ 이었고, 상태 죄책감 10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alpha=.76$, 특질 죄책감 20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alpha=.78$, 도덕적 기준의 15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alpha=.65$ 였다(이순희, 2000).

사회적 선회도 질문지: Crowne과 Marlowe(1964)가 개발한 33문항 척도로 억압연구에서는 방어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예’ 혹은 ‘아니오’에 응답하게 되어있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33점까지이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alpha=.76$,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6이었다(이용승, 2000).

분석

먼저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성 행동, 성 의식, 성적사고 경험빈도 및 불편감, 외향성, 개방성, 죄책감, 사회적 선회도에 있어 남녀 대학생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전체 집단 및 남녀 대학생 집단 각각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성격 및 행동 특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것이 남녀 대학생들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WINDOWS 10.0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현재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수준은 남자의 경우 평균 1.37(표준편차 .80)이고, 여자는 평균 .20(표준편차 .42), 과거에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수준은 남자가 평균 1.21(표준편차 .96), 여자는 평균 .14(표준편차 .38)이었다.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수준은 현재의 접촉수준 및 과거의 접촉수준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높았다, $t(249)=13.31, p<.001, t(249)=10.38, p<.001$. 현재 인터넷 음란물을 전혀 보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남학생은 11%(154명 중 17명)인데 비해 여학생은 81.4%(97명 중 79명)이다. 과거 청소년기

표 1. 남녀 집단별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사람 수와 백분율

측정치	수준 ^a	남자(n=154) 여자(n=97)	
		사람수(백분율)	사람수(백분율)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0	17 (11.0%)	79 (81.4%)
	1	77 (50.0%)	17 (17.5%)
	2	46 (29.9%)	1 (1.0%)
	3	14 (9.1%)	0 (0%)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0	44 (28.6%)	84 (86.6%)
	1	48 (31.2%)	12 (12.4%)
	2	48 (31.2%)	1 (1.0%)
	3	14 (9.1%)	0 (0%)

^a 0: 전혀 아니다, 1: 약간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표 2. 남녀 집단별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성 행동 및 성격 측정치에 대한 t-검증 결과

측정치	남 자		t
	평균(표준편차)	여 자 평균(표준편차)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1.37 (.80)	0.20 (.42)	13.31 ***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1.21 (.96)	0.14 (.38)	10.38 ***
성 행동	10.04 (3.99)	3.81 (2.61)	13.49 ***
성 의식	69.21 (14.24)	47.01 (16.10)	11.38 ***
성적사고 경험빈도	84.61 (43.85)	28.30 (25.44)	11.12 ***
성적사고 불편감	158.99 (53.27)	211.32 (63.17)	-6.75 ***
외향성	106.14 (19.10)	107.03 (16.50)	-.37
개방성	108.83 (12.67)	105.09 (13.27)	2.19 *
죄책감	92.51 (17.26)	92.14 (15.84)	.16
사회적 선회도	11.47 (4.14)	11.72 (3.69)	-.48

* $p < .05$, ** $p < .01$, *** $p < .001$

에 한 번도 인터넷 음란물을 보지 않았다고 대답한 남학생은 28.6%이며 여학생은 86.6%였다(표 1).

현재 및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성 행동, 성 의식, 성적사고에 대한 경험빈도 및 불편감, 외향성, 개방성, 죄책감, 사회적 선회도에서 남녀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향성과 죄책감, 사회적 선회도를 제외한 나머지 측정치들에서 남녀차이는 뚜렷이 드러났다(표 2).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현재 인터넷 음란물을 더 많이 접촉하고, $t(249)=13.31, p < .001$, 과거에도 인터넷 음란물을 더 많이 접촉했다, $t(249)=10.38, p < .001$. 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 행동이 더 많고 $t(245)=13.49, p < .001$, 성적 자극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t(246)=11.38, p < .001$, 성적 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고, $t(233)=11.12, p < .001$, 그러한 성적 사고에 대한 불편감이 더 낮고, $t(230)=-6.75, p < .001$, 더 개방적이다

$t(241)=2.19, p < .05$.

표 3은 전체 집단과 남자 및 여자 집단으로 나누어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각종 질문지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현재 인터넷 음란물에 자주 접촉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 모두 성 행동이 더 많았다 $r(152)=.44, p < .001, r(95)=.30, p < .01$. 현재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남자들은 자위 행동을 더 많이 하고, $r(154)=.32, p < .001$, 음란잡지나 음란영화, 음란소설 등 성인물을 더 자주 접하며, $r(153)=.51, p < .001$, 성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었다, $r(154)=.41, p < .001$. 현재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여자들은 성인물을 자주 접하고, $r(97)=.38, p < .001$, 성적인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다, $r(97)=.20, p < .05$. 참고로, 성 행동의 빈도를 보면 남자의 경우 특정 성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비율은, 자위 4.5%(현재) 5.2%(과거), 이성친구와 성 관계 75.3%(현재) 90.9%(과거), 낯선 이성과 성 관계 95.5%

표 3. 집단별 현재 및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질문지들 간의 상관

측정치	전 체		남 자		여 자	
	현재 ^a	과거 ^b	현재	과거	현재	과거
성 행동	.68 ^{***}	.52 ^{***}	.44 ^{***}	.24 ^{**}	.30 ^{**}	.19
자위 경험	.57 ^{***}	.41 ^{***}	.32 ^{***}	.10	.13	.02
이성친구와 성관계	.18 ^{**}	.11	.14	.05	.07	.09
낮선 이성과 성관계	.15 [*]	.13 [*]	.07	.04	.19	.49 ^{***}
음란잡지/영화/소설	.71 ^{***}	.58 ^{***}	.51 ^{***}	.35 ^{***}	.38 ^{***}	.29 ^{**}
성 관련 대화	.53 ^{**}	.41 ^{***}	.41 ^{***}	.26 ^{***}	.20 [*]	.11
성 의식	.57 ^{***}	.43 ^{***}	.34 ^{***}	.16 [*]	.25 [*]	.23 [*]
성적사고 경험빈도	.61 ^{***}	.41 ^{***}	.40 ^{***}	.13	.21 [*]	.12
노출	.47 ^{***}	.37 ^{***}	.27 ^{**}	.14	.21 [*]	.30 ^{**}
관음	.61 ^{***}	.45 ^{***}	.40 ^{***}	.18 [*]	.20	.16
자위	.62 ^{***}	.43 ^{***}	.40 ^{***}	.16 [*]	.29 ^{**}	.16
다수의 대상	.47 ^{***}	.36 ^{***}	.26 ^{**}	.13	.24 [*]	.27 ^{**}
가학	.59 ^{***}	.44 ^{***}	.39 ^{***}	.19 [*]	.14	.13
피학	.42 ^{***}	.30 ^{***}	.34 ^{***}	.16 [*]	.22 [*]	.25 [*]
다양한 대상	.57 ^{***}	.34 ^{***}	.39 ^{***}	.04	.21 [*]	.21 [*]
낮선 이	.46 ^{***}	.28 ^{***}	.22 ^{**}	-.01	.11	.13
동성애	.08	-.04	.07	-.08	.15	.05
근친상간	.31 ^{***}	.15 [*]	.27 ^{**}	.02	.04	.13
음란채팅	.47 ^{***}	.32 ^{***}	.28 ^{***}	.08	.26 ^{**}	.45 ^{***}
부적절한 상황	.44 ^{***}	.23 ^{***}	.30 ^{***}	.02	.12	.62
기타 행위	.49 ^{***}	.39 ^{***}	.27 ^{***}	.14	.10	.25 [*]
성적사고 불편감	-.33 ^{***}	-.25 ^{***}	-.06	-.00	-.20	-.16
노출	-.31 ^{***}	-.25 ^{***}	-.06	-.02	-.27 ^{**}	-.25 [*]
관음	-.36 ^{***}	-.26 ^{***}	-.16 [*]	-.04	-.23 [*]	-.17
자위	-.43 ^{***}	-.34 ^{***}	-.15	-.05	-.17	-.20
다수의 대상	-.32 ^{***}	-.22 ^{***}	-.11	-.00	-.18	-.13
가학	-.35 ^{***}	-.26 ^{***}	-.08	-.01	-.25 [*]	-.21 [*]
피학	-.36 ^{***}	-.25 ^{***}	-.16 [*]	-.03	-.26 [*]	-.18
다양한 대상	-.32 ^{***}	-.17 ^{**}	-.10	.07	-.17	-.08
낮선 이	-.37 ^{***}	-.25 ^{***}	-.12	.02	-.13	-.06
동성애	.15 [*]	.20 ^{**}	.11	.17 [*]	-.09	-.00
근친상간	-.08	.03	-.04	.10	-.06	.02
음란채팅	-.32 ^{***}	-.27 ^{***}	-.05	-.02	-.19	-.19
부적절한 상황	-.15 [*]	-.07	-.04	.03	-.18	-.08
기타 행위	-.34 ^{***}	-.32 ^{***}	-.06	-.11	-.14	-.11

표 3. 집단별 현재 및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질문지들 간의 상관(계속)

측정치	전 체		남 자		여 자	
	현재 ^a	과거 ^b	현재	과거	현재	과거
외향성	.11	.21**	.16*	.29**	.21**	.19
온정	.02	.09	.13	.24**	.15	.02
사교성	.17**	.14*	.15	.16*	.03	-.19
주장	.18**	.06	.20*	.00	.02	.00
활동성	.15**	.14*	.12	.15	.13	-.03
자극추구성	.06	.10	.06	.13	.12	.09
긍정적인 정서	-.01	-.01	.05	.07	-.03	-.14
개방성	.14*	.19**	.07	.19*	.08	-.03
상상	.23***	.18**	.19*	.16*	.11	-.06
심미성	.22***	.16**	.08	.04	.12	.01
감정의 개방성	-.03	.06	.03	.18*	-.07	-.11
행동의 개방성	-.01	.09	-.04	.15	.03	-.08
사고의 개방성	.04	.12*	-.03	.13	.11	.07
가치의 개방성	.14*	.16*	.09	.13	.03	-.00
죄책감	.02	-.01	-.01	-.02	.14	-.02
상태 죄책감	.01	.04	-.01	.06	.01	-.02
도덕적 기준	-.10	-.13*	-.12	-.15	.02	-.01
특질 죄책감	.11	.04	.06	-.01	.17	-.04
사회적 선회도	-.06	-.07	-.02	-.06	-.16	-.13

^a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b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95.5%(과거), 음란잡지/음란영화/음란소설 등 성인물 접촉 10.4%(현재) 3.2%(과거), 성 관련 대화 18.2%(현재) 8.4%(과거) 등이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특정 성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비율은, 자위 58.8%(현재) 56.7%(과거), 이성친구와 성 관계 91.4%(현재) 94.8%(과거), 낯선 여성과 성 관계 100.0%(현재) 99.0%(과거), 음란잡지/음란영화/음란소설 등 성인물 접촉 58.8%(현재)

49.5%(과거), 성 관련 대화 39.2%(현재) 37.1%(과거) 등이었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성 의식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남자와 여자 모두 성적 자극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r(151) = .34, p < .001$, $r(97) = .25, p < .05$.

성적사고의 경험빈도는 남자와 여자 모두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r(144)=.40, p<.001, r(91)=.21, p<.05$. 남자의 경우 동성애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있어서 현재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할수록 더 많은 성적사고를 보고했다. 여자의 경우 현재 인터넷에 자주 접촉할수록 노출, $r(95)=.21, p<.05$, 자위, $r(93)=.29, p<.01$, 다수의 대상, $r(96)=.24, p<.05$, 피학, $r(96)=.22, p<.05$, 다양한 대상, $r(95)=.21, p<.05$, 음란채팅, $r(96)=.26, p<.01$, 등에 대한 성적사고를 더 많이 보였다.

집단 전체를 보았을 때 현재 및 과거에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했을수록 성적사고에 대한 불편감이 적었다, $r(232)=-.33, p<.001, r(232)=-.25, p<.001$. 다만 동성애에 대한 불편감은 음란물에 더 많이 접촉한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더 높게 보고되었고, $r(242)=.15, p<.05$, 근친상간에 대한 불편감은 음란물 접촉빈도와 상관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들은 인터넷 음란물 경험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낮은 불편감을 보였다. 그러나 남녀 집단을 나누었을 때는 성적

사고 불편감과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간의 상관은 부분적으로 몇 가지 세부항목들에서만 관찰되었다. 남자의 경우 현재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할수록 관음과 피학에 대한 사고 불편감이 낮았다, $r(149)=-.16, p<.05, r(149)=-.16, p<.05$. 여자는 현재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노출, $r(93)=-.27, p<.01$, 관음, $r(93)=-.23, p<.05$, 가학, $r(93)=-.25, p<.05$, 피학, $r(91)=-.26, p<.05$ 등에 대한 사고 불편감이 낮았다.

보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남자들은 현재 및 과거 청소년기에 인터넷 음란물에 더 많이 접촉하였다, $r(149)=.16, p<.05, r(149)=.29, p<.01$. 현재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여자들도 보다 외향적인 특성을 보고하였다, $r(92)=.21, p<.01$.

과거에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했던 남자들은 보다 더 개방적이었다, $r(151)=.19, p<.05$. 그러나 여자들은 개방성과 음란물 접촉간의 어떠한 유의한 상관도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수준과 죄책감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도 없었으나, 전체 집단에서 죄책감

표 4. 성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요약

집단	예언변인	R ²	ΔR ²	B	SE B	β
전체	성적사고 경험빈도	.52		.03	.006	.33***
	현재 ^a	.60	.08	1.30	.29	.25***
	성 의식	.64	.04	.06	.01	.25***
	과거 ^b	.66	.02	.82	.23	.17**
남자	성적사고 경험빈도	.32		.03	.007	.43***
	현재	.38	.06	1.39	.40	.27**
	과거	.41	.03	.79	.29	.19**
여자	성 의식	.39		.07	.02	.42***
	성적사고 경험빈도	.47	.08	.03	.01	.34**

^a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b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 $p<.05$, ** $p<.01$, *** $p<.001$

질문지의 하위 측정치인 도덕적 기준에 대한 응답만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r(240)=-.13, p<.05$. 사회적 선회도는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어떠한 상관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질문지의 각 세부항목들과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성 행동을 예언해주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변인투입(stepwise)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는 성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구에 사용된 모든 검사점수들을 예언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성적사고 경험빈도와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성 의식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이 성 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네 변인은 전체 변량의 66%를 설명하였다. 남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성적사고 경험빈도와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이 의미 있는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은 6%의 추가설명력을 나타냈고,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은 3%의 추가설명력을 지녔다. 이에 비해 여자 대학생의 경우 성 의식과 성적사고 경험빈도가 성행동의 46%를 설명하였다.

성 행동 요인이 현재 및 과거의 경험을 모두 포괄하며 음란잡지/음란영화/음란소설을 보는 것, 성 관련 대화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다 실제적인 현재의 성 행위에 대한 예언변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재 자위행위, 현재 이성친구와 성관계, 현재 낯선 이성과 성관계 등 세 항목으로 새로운 종속변인인 '현재 성 경험'을 구성하여 단계적 변인투입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 음란물을 접촉한 수준이 예언변인에서 제외되었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성적사고 경험빈도와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성 의식 세 가지 예언변인이 현재 성 경험의 4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성적사고 경험빈도는 현재 성 행위 점수의 33%를 설명했고,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6%, 성 의식이 3%의 추가 설명력을 보였다. 남자의 경우 성적사고 경험빈도와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이, 여자의 경우 성 의식과 성적사고 경험빈도가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추출되었다.

표 5. 현재 성 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요약

집단	예언변인	R^2	ΔR^2	B	SE B	β
전체	성적사고 경험빈도	.33		.06	.002	.24**
	현재 ^a	.39	.06	.34	.09	.25**
	성 의식	.42	.03	.01	.005	.26**
남자	성적사고 경험빈도	.13		.06	.002	.27**
	현재	.17	.04	.31	.13	.22*
여자	성 의식	.24		.01	.004	.32*
	성적사고 경험빈도	.29	.05	.01	.007	.28*

^a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

* $p<.05$, ** $p<.01$, *** $p<.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수준과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들 및 성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란물 접촉수준 및 성과 관련된 생각과 행동, 태도에 있어 남녀 차이는 매우 두드러졌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현재와 과거 각각 약 6.8배, 8.6배씩 더 높은 음란물 접촉빈도를 보였고, 성적인 사고 빈도가 3배 정도 더 높았고, 불편감은 더 낮으며, 성적 자극을 1.5배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과 관련된 경험도 2.6배 더 많았다. Wilson과 Lang(1981)은 서로 다른 성적 환경의 개수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고 보고하였으며, Iwawaki와 Wilson(1983)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적 환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점수화한 수치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의 6배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남성이 성 경험과 성적사고 경험 빈도 모두 여성보다 높게 보고하였다.

둘째, 인터넷 음란물에 자주 접촉하는 것과 성 행동 간의 관계는 남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성 행동 및 현재의 성 경험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이 두 번째 강력한 예언변인이었으며, 현재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이 성 행동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 대학생의 경우 인터넷 음란물에 자주 접촉하는 것이 성 행동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여자 대학생의 성 행동은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과 성적사고를 자주 하느냐 하는 점에 영향을 받았다. 비록, 몇몇 극단치(outlier)의 존재로 인해 낮은 이성과의 성관계가 과거 인터넷 음란물 사용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음란잡지 등의 성인물을 사용하는 정도가 인터넷 음란

물 접촉수준과 상관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여자대학생들의 성 행동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80%가 넘는 여자 대학생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인터넷 음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여자 대학생들은 현재 특정 성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자위 58.8%,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91.4%, 낯선 이성과 성관계 100% 등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로부터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과거 청소년기에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것은 이성친구와의 성관계 정도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과거 청소년기에 자위 행동이 아닌 직접적 대면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란물 사용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이 음란물 접촉과 실제 성 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인터넷 음란물에 자주 접촉할수록 다양한 종류의 성적사고 경험빈도도 높았다. 남자 대학생들의 경우 동성애를 제외한 열두 가지 성적 사고 모두에서 음란물 접촉수준이 높을수록 사고 빈도도 증가하였다. 여자 대학생들도 제시된 성적사고 내용들 중 절반 정도가 현재 및 과거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적사고 경험빈도가 높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희를 얻기 위해 각종 성적 자극과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는 인터넷 음란물에 자주 접촉했거나, 혹은 인터넷 음란물을 통해 여러 가지 음란 정보에 노출됨으로써 성적 사고들의 경험빈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함축하는 증거로 여겨진다.

다섯째, 인터넷에서 음란물에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은 성적 자극에 대한 태도가 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음란물에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 보고한 높은 개방적 경향성과

도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동성애에 대한 사고 빈도 및 불편감은 다른 항목들과 달랐다는 점이다. 동성애에 대한 사고빈도는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상관이 없었고, 동성애에 대한 불편감은 오히려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더 높았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동성애에 대한 성 태도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Meston, Trapnel과 Gorzalka(1998) 등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태도 연구에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동성애에 대해 허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국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영숙(2001)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진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오히려 남자에게서 더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Herek(1986)은 남성이 성역할에 대해 압박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동성애를 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지각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섯째, 인터넷 음란물에 자주 접촉할수록 대체로 성적사고 불편감은 감소한다. 남녀 각 집단의 분석을 보면 몇몇 성적사고들에 대한 분석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볼 수 있었다. 전체 집단의 분석에서 압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성적사고에 대한 불편감이 낮고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이용하는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인터넷 음란물 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터넷 중독과는 다른 측면이 있었다. 인터넷 중독은 내성적인 사람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는데, 인터넷 음란물 접촉의 경우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들이 음란물을 더 많이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덟째,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과 죄책감 간에는 어떠한 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죄책감의 하위 항목 중 도덕기준에 대한 항목에서 음

란물 접촉수준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과거 인터넷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의 도덕기준이 엄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Young (1998b)은 인터넷 사이버 섹스 중독을 판별하기 위해서 제시한 6가지 질문 중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사용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2000)의 조사에서는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죄책감 경험이 27.4%였다. 그러한 죄책감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의 음란물 접촉 빈도나 인터넷 중독정도에 대한 보고나 비교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음란물 접촉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는 사실이 음란물 중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향후에 더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선회도는 인터넷 음란물 접촉 빈도와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이 방어적 목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았음을 함축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인터넷 음란물 접촉수준을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 연구했다는 점이다. 향후의 연구는 음란물 접촉의 정도를 재는 문항들을 더 보완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중독을 호소하는 임상집단과 20대 중반 이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에 접촉하는 행동이 이용자의 성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분석하여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재훈 (2000, 8월). 당당한 반대, 안티사이트 열풍. 샘이 깊은 물, 172-173.

- 동아일보 (2000, 10, 11). 청소년 5명중 1명꼴 음란채팅 경험. <http://www.donga.com>에서 2001, 5, 1 인출.
- 동아일보 (2000, 12, 16). 인터넷 '청부살인' 충격...자살 사이트 접속 10대에. 31면
- 동아일보 (2001, 1, 19). 포르노 뺨치는 '인터넷 성인방송' 청소년 망친다. 31면
- 동아일보 (2001, 12, 16). 인터넷 사이트 46곳 639만명 정보 빼낸 고교생 해커 구속. 1면
- 동아일보 (2002, 7, 9). 채팅 경험 청소년 30% "성매매 제의 받았다." 29면.
- 동아일보 (2002, 8, 22). 인터넷 성매매 급속 확산. 8면.
- 박영숙 (2001). 중학생용 성심리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259-278.
- 박정은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석 (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 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봉건 (1999).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독: 통신, 인터넷 중독증의 증상과 예방. 사이버공간의 심리. 서울. 박영사
- 이세용 (2000). 청소년 인터넷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결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건강연구소
- 이소영, 권정혜 (2001). Impulsiveness,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communication style of adolescent internet game addicts.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67-80.
- 이순희 (2000). 도덕적, 인과적 책임감 및 불이행에 대한 책임감과 강박증상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용승 (2000). 강박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철영 (2000, 10월). 제 2차 밤생활 혁명의 안과 밖. 신동아, 642-646.
- 조선일보 (2000, 6, 23). 아이러브스쿨: "그리운 동창생 여기 다 모였네." 59면.
- 조선일보 (2000, 8, 2). 온라인 게임 무서워; 공공연한 '가상살인'... 게임 속 무기 현금거래. 25면.
- 조선일보 (2000, 11, 7). 청소년 50만 인터넷 중독; 컴퓨터 떠나면 불안 다른 일은 흥미 없어 컷가엔 늘 게임소리 밤새 뒤 학교선 졸고 아예 집나가기도... 31면.
- 조선일보 (2001, 2, 10). 자살 사이트 접속해 오다 중학생 또 자살. 31면
- 조선일보 (2001, 2, 13). 인터넷 사기꾼 네티즌에 덜미; 사이버서 범인행각 추적, 경찰 기소해 결국 검거. 31면
- 조선일보 (2001, 4, 23). 10대 34% 인터넷 중독, 음란행위 경험도 44%. <http://www.chosun.com>에서 2002, 5, 1 인출.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증후군 및 음란물 접촉 행위에 관한 연구. <http://fairmedia.womenlink.or.kr>에서 2002, 7, 1 인출
- 홍상환, 김영환 (1998).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258-271.
- Anderson, K. J. (1999).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http://www.rpi.edu/~anderk4/research.html>에서 2001, 5, 1 인출.
- Armstrong, L., Phillips, J. G., & Saling, L. L. (2000). Potential determinants of heavier internet usag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Computer Studies*, 53(4), 537-550.
-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 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s*, 80, 879-882.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Manual for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rowne, D. P., & Marlowe, D. A. (1964). *The approval motive: Studies in evaluative dependence*. New York: Wiley.
- Davis, C. M., Yarber, W. L., Bauserman, R., Schreer, G., & Davis, S. L. (1998). *Handbook of sexuality-related measur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Fisher, W. A., Byrne, D., White, L. A., & Kelly, K. (1988). Erotophobia-erotophilia as a dimension of personalit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5, 123-151.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disorder*. <http://www.cog.brown.edu/brochures/people/duchon/humor/internet.addiction.html> 에서 2001, 5, 1 인출.
- Griffiths, M. D. (1996). Internet addiction: an issue for clinic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Forum* 97, 32-36.
- Herek, G. M. (1986). On heterosexual masculin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 563-577.
- Iwawaki, S., & Wilson, G. D. (1983). Sex fantasies in Japa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 543-545.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y*, 53, 1017-1031.
- Kugler, K., & Jones, W. H. (1992).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guil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318-327.
- Meston, M., Trapnell, P. D., & Gorzalka, B. (1998).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 176-188.
- Rauschenberger, S. H. & Lynn, S. J. (1995). Fantasy proneness, DSM-IV-R Axis I Psychopathology and dissoci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2), 373-380.
- Shapira, N., Goldsmith, T., Keck Jr., P., Khosla, U., & McElroy, S. (2000). Psychiatric features of individuals with problematic internet us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7, 267-272.
- Shotton, M. A. (1991). The costs and benefits of computer addiction. *Behavior and Information Technology*, 10, 219-230.
- Tanner, W. M., & Pollack, R. H. (1988). The effect of condom use and erotic instructions on attitudes toward condom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5, 537-541.
- Wilson, G. D., & Lang, R. J. (1981). Sex differences in sexual fantasy patter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 343-346.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 Young, K. S. (1998a).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1), <http://netaddiction.com/articles/cyberpsychology.htm> 에서 2001, 5, 1 인출
- Young, K. S. (1998b).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ey & Sons.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http://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htm>에서 2002, 7, 1 인출

Young, K. S., & Rodgers, R. C. (1998). *Internet addiction: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its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69th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netaddiction.com/articles/personality_correlates.htm에서 2002, 7, 1 인출.

원 고 접 수 일 : 2002. 8. 8.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0. 9.

게 제 확 정 일 : 2002. 10. 22.

K C I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ex behavior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ho often use internet adult-only sites

Juliet Jue Seung-Soo Ha Seok-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degree of using internet adult-only sites, various psychological factors and sex behavior. The degree of using internet adult-only sites in past and present, various sex behavior, sexual opinions, the frequency and discomfort of sexual thoughts, extro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s, guilty, and social desirability were examined through *t*-test, correlation and regression. As a result, male students visit internet adult-only sites more frequently and do more sex behavior than female students.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often use internet adult-only sites, have frequent sexual thoughts and positive sexual opinions. Also they have low degree of discomfort over sexual thoughts and they are extrovert. Neither guilty nor social desirability had any correlation with the degree of using internet adult-only sites. Only male students showed that the present degree of using internet adult-only sites affects sex experience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directions for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Internet adult-only sites, sex behavior, sexual opinion, sexual thoughts